

# 남도 명인의 정성 직접 느껴보세요

7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시연  
나주서 소반·쪽염색 체험  
여수서 갓·합죽선 등 만들기



나주시 다시면 전수교육관에서 진행된 염색장 정관채 공개행사.

예로부터 쪽빛이 깊어가는 7월, 나주시 영산강변에는 쪽이 무성했다. 벼랑이 잦았던 시절에는 논농사보다 쪽을 심는 편이 이문이 많이 남았다. 나주에 천연염색박물관이 있고, 무엇보다 나주라는 지명이 '비단 나' (羅)에서 연유한 것은 그때문이다.

나주의 염색 역사는 셋골(다시)을 중심으로 전해온다. 셋골 정가마을은 예로부터 염직문화가 발달했으나 한국전쟁 이후 그 맥이 끊기다시피 했다. 염색장 정관채(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씨는 어린 시절 마을 어귀에 지천이었던 목화밭 풍경을 또렷이 기억한다. 그는 그렇게 푸른색에 매료돼 염색의 길로 들어섰다.

여름방학을 즈음해 염색장을 비롯 소반장 등 남도의 무형문화재들이 공개 시연을 펼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전통기법을 토대로 과정을 선보이는 시연은 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전통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음식을 받쳐먹는 소반을 만드는 소반장(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김춘식의 시연 행사가 22일까지 나주시 다시면 한국천연염색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펼쳐진다.

조선시대 소반은 좌식문화에 편리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음식을 옮기는 이동적인 측면 그리고 음식을 올려서 먹는 식탁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나주반'은 호남을 대표하는 소반으로 상판의 형태는 사각, 12각, 8각의 판형이 많다. 재료는 은행나무, 느티목, 소나무가 많이 쓰이며 판에 축을 내 폼이 파인 변죽을 판에 물려서 상판을 제작하는 기법이 동원된다.

소반장 김춘식은 60년 넘게 나주반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애쓰고 있다. 1986년 전남 무형문화재 제14호 나주반장에, 2014년 소반장에 지정됐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전반적인 나주반 제작 과정을 시연할 예정이다. 문의 061-332-2684.



나침반 윤도

염색장 정관채 공개행사는 20일부터 22일까지 나주시 다시면에서 전수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전수교육관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집 근처에 2009년 개관했으며 쪽염색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해 개방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쪽 재배에 관한 이론을 강연하고 갓물, 매염제 등 직접 쪽 염료를 만들어본다. 문의 061-332-5359.

여수 전남문화회관 전시실에서는 26일부터 29일까지 공예 5개 분야 전시 및 시연과 체험이 진행된다.

26일에는 조현중 국립무형유산원장이



'나주반'을 만드는 소반장 김춘식씨.

참석한 가운데 2전시실에서 오픈식을 갖고 갓, 장도(갓), 윤도(나침반), 화혜(꽃신), 선자(합죽선) 등 5개 품목 50점 전시가 있을 예정이다.

27일부터는 1전시실에서 종목별 작품 제작 기법을 보여주고 제작과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조선시대 갓

갓일(제4호) 보유자 박창영은 '갓 선비의 멋을 보다'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말(19세기) 갓을 제작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종이재료를 이용해 갓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낙죽 장도장 한상봉 작품공개행사' 주제로 열리는 장도장(제60호) 보유자 한상봉의 시연은 낙죽 장식 만들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윤도장(제110호) 보유자 김중대는 '우주를 보다'라는 주제로 나침반의 원리를 설명한다. 참가자들은 윤도의 원리를 체험하고 목장식을 만들어볼 수 있다.

화혜장(제116호) 보유자 황해봉은 '한국의 전통꽃신'을 주제로 꽃신 장식하기를 시연하며 선자장(제128호) 김동식은 '합죽선 만들기'를 주제로 참가자들과 부채를 만들 예정이다. 문의 061-659-3799, 010-8716-710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뉴욕이나 런던 등 외국의 문화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종종 부러울 때가 있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다. 대부분의 미술관이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 외곽에 위치한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13년 서울시 중로구 삼청동에 문을 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하 서울관)은 '특별한' 곳이다. 주변 문화시설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서울 도심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발단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송파구로 이전하면서 빈 건물로 남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리노

선 건 청주가 처음이다. 국내 첫 수장형 전시관을 내건 청주관은 연면적 1만 9천855㎡의 지상 5층 건물로, 1만천여 점의 작품을 전시·보관할 수 있다.

청주시가 현대미술관을 유치한 데에는 단체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콜라보'(협업)가 있었다. 옛 청주연초제조창 부지를 국토부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과 연계 명분을 살리고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와의 윈윈을 내세워 현대미술관의 '청주행'을 공론화했다.

최근 광주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광주관)을 동구 중앙초등학교에 건립하는 계획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2014년 등 수차례 유치 움직임이 있었지만 매년 융투사미로 끝났

## 국립현대미술관 in 광주

텔링이었다. 해체 대신 복원을 선택한 서울시는 장교 끝에 미술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해 1천여 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도시이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에 위치해 있다 보니 내외국인들을 불러 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서울관이 들어선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소격동 부근이다. 인근에 경복궁, 창덕궁이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

다. 하지만 이번에는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총 사업비 1180억원(국비 300억원), 1만5299㎡(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문광부 승인과 국비 확보다. 그동안 정부는 타 사·도와의 형평성을 우려해 광주관을 허가하는데 난색을 표했었다.

하지만 광주는 다른 도시들과 '상황'이 다르다. 아니 유리하다고 해야 옳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의도시 등의 메가 이벤트를 활성화시키려면 현대미술관의 시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앙초교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문화전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다. 현대미술관 분관 유지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예술계와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물론이다.

서울관에 이어 오는 12월 충북 청주에도 국립현대미술관(청주관)이 문을 연다. 지방에 현대미술관 분관이 들어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광주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쓰면 기프트콘 드려요"

광주문화재단은 2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쓰고, 선물받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문화누리카드 전용가맹점에서 1회 결제한 금액대별로 기프트콘을 발송해준다. ▲7만원 결제 시 메가박스 영화관람권(1인) 50명 ▲4만원 이상 7만원 미만 결제 시 뚜레쥬르 축축한 초코타입(1개) 100명 ▲1만원 이상 4만원 미만 결제 시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Tall 사이즈(1잔) 200명 ▲1만원 미

만 결제 시 CU모바일상품권 2000원권 3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참여 대상자 마감 시 이벤트는 종료된다. 1인 1회, 1영수증에 한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누리블로그(blog.naver.com/gjcfmunhwanuri) 및 '광주문화누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062-670-7914. /박성천 기자 skypark@



## '역사 속 인물들과 현재를 사는 우리'

내일 하정웅미술관 인문학강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인문학강좌 7월 행사가 19일 오후 3시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에서는 역사학자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융합고고학과) 교수가 '역사를 통해 본, 어떻게 살아야 보람된 삶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동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학위, 한양대학교에서 '백제 집권 국

가 형성 과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 교수는 경기도·충남 문화재위원을 역임했으며 KBS '역사스페셜', '역사저널' 등에 출연해 대중 역사학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역사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역사 속 인물들이 맞닥뜨렸던 문제를 통해 현재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문의 062-613-713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